

## 11/24(수) 욱기 묵상 21

### 욱기 12:13-25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욱은 모든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는 욱이 친구들과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가서 욱은 친구들과 다른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 지혜와 권능

욱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첫째로 모든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말씀합니다(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셨나니”). 하나님은 단지 지혜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지혜를 이 세상에 나타내실 지략과 권능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다고 고백합니다(골 2:3,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지혜의 영을 구하기도 했습니다(엡 1: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의 영은 곧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혈면 세울 자가 없고 가두시면 놓아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14절, “그가 혈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이는 사람의 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아무도 가로 막거나 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가 뜻하신 대로 된다고 말씀합니다(15-16절,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로서 그가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고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6절에서 욱이 말하는 ‘속은 자와 속이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욱의 친구들을 말하는 것으로 그들이 ‘속고 속이는 관계’ 즉, ‘지혜가 없는 자’라는 것을 욱이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속인다’는 것은 결국 그들에게 지혜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의 지혜

욱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 계속해서 언급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고관들과 재판장을 벌거벗기고 어리석게 하신다(17절,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 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전자의 내용(‘벌거벗기다’)은 먼저 고대 근동에서 모든 지위를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재판은 한 사회에서 가장 공정한 제도인데 재판장이 어리석게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한 국가와 사회를 무력화 시키기도 하신다는 뜻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왕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에 동이시고 제사장들과 권력이 있는 자를 끌어 가시고 넘어뜨리신다(18-19절,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 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이는 국가가 망하고 적군의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즉, 거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충성된 자들의 말이 실현되지 않게 하시고 노인들의 판단을 빼앗기도 하십니다(20절,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이런 사회는 윤리적 기준이 무너지고 사회적 기강이 허술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허락 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17-20절의 말씀대로 부정적으로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선하게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분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22절,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 결국 욥은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23절,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러가게도 하시며”). 결론적으로 욥의 표현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언급하면서 친구들의 의견과 같이 권선징악의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때로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욥의 신앙이 친구들의 신앙보다 더 낫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세상의 악한 일은 죄의 결과로서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세상의 모든 일이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욥 1:21,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에게도 욥의 친구들과 같은 권선징악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나쁜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낙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나쁜 일을 죄의 문제로만 규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러한 신앙은 결국 축복은 나의 공로주의적 신앙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믿음을 갖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신앙은 결국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인도네시아를 위한 기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표한 최신 인구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현재 2,040 만 명의 개신교도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인의 수적 성장이 지속되고, 또한 말씀에 기초하여 건강하게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 3. 구역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페어필드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교육부서를 위한 기도:** 우리교회에 속한 교육 부서를 위해 중보합니다. 오늘은 CM 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